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리히터 교수 초청강연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오랜 투쟁의 결과”

‘여성의 해’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 설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소장대리 주준희)는 지난달 23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여성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캔사스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린다 K. 리히터 씨를 초청, <여성의 해 1992년>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마련했다. 캔사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66년부터 지금까지 모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리히터 교수는 필리핀, 인도 등에서 여성정치를 공부하고 제3세계 여성정치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정치학자.

이날 강연회에서 리히터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여성의 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진출이 활발했던 92년의 미국여성정치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리히터 교수는 여성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여성인력 양성은 물론 할당제, 선거자금법개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통해 여성하원의원은 2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고 상원은 3명에서 7명이 되었으며 주의회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은 18%에서 20%로 증가하였고 3명의 주지사가 탄생되었다고 전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은 도나 샤랄라 보건사회부장관, 캐론 브라우너 환경부 장관, 헤이젤 오리러리 에너지부 장관, 자네트 리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케이 울브라이트 유엔대사를 각료급에 임명하였으며, 로라

타이슨 버클리대 교수를 경제지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여성각료를 배출하였다고 소개했다.

리히터 교수는 미국에서 여성정치가 활성화된 이유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여성들이 점진적으로 육성된 동시에 의회와 주의회의 할당제, 당선가능의식의 증가, 선거자금법 개정 등 구조적 요인이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위한 투쟁의 결과다. 여성정치의 진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92년의 선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들어선 한국에서도 여성의 해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